

4월 25일(월) / 왕상13-15

▶**내용요약:** 13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벳엘에 우상제단을 세우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를 책망한다. 하지만 이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 14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의 통치와 남쪽 유다에 대한 르호보암의 통치가 기록되는데 두 왕 모두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15장은 아비얌과 아사의 유다 통치와 나답과 바아사의 이스라엘 통치를 볼 수 있다. 아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정직한 모습을 보인다.

▶**질문:** 유다 왕 아사가 노년에 아팠던 병은 그의 신체 부위 어디에 생겼는가?(15장)

▶**생각하기:** 13장에 나오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노(老)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죽는 모습은 도전이 된다. 노선지자가 자신의 초청이 천사의 지시라고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 사람이라면 철저히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하고 있는가? 사람의 유한하고 거짓된 말과 약속을 영원한 것처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4월 28일(목) / 왕하1-3

▶**내용요약:** 1장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그는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는다. 2장에서는 엘리야가 사명을 다한 후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의 사역을 계승한다. 3장은 모압의 반역으로 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 모압을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된다.

▶**질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불렀던 선지자는 누구인가?(2장)

▶**생각하기:**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면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줄지를 구하라는 물음에 엘리사는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한다. 암울한 시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였고 그 결과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된다. 우리도 복음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기 위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도록 하자.

5월 1일(일) / 왕하10-12

▶**내용요약:** 10장에서는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 지속된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칠십 명을 포함하여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 이외에도 예후는 바알을 위하는 척하며 바알 대회를 열어 그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신당은 헐어버린다. 11장은 아하시야의 죽음으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유다를 통치하지만 왕자인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아달랴는

4월 26일(화) / 왕상16-18

▶**내용요약:** 16장에서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이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엘라에서 아합의 통치까지가 기록된다.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오랜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18장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명과 아세라 선지자 사백명과 대결해서 승리한다. 이어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린다.

▶**질문:**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로 이세벨의 꾀박이 있을 때 선지자 일백명을 숨겨주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인가?(18장)

▶**생각하기:** 아합은 악한 왕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가뭄을 통해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18:16)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한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4월 29일(금) / 왕하4-6

▶**내용요약:** 4장에서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된다. 그는 선지자 제자의 아내를 돕고자 기름을 채우고 수넵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다. 5장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 자신의 병이 낫는다. 6장에서는 엘리사가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아주고 이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함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식량이 부족한 위기에 직면한다.

▶**질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장관인 나아만에게 병 고침의 답례로 받은 달란트 액수는 얼마인가?(5장)

▶**생각하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진영을 만들면 그 계획한 곳에 이스라엘이 방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의아해하자 그의 신복이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6:12)고 한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계획을 알려주어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폐위된다. 12장은 요아스가 유다의 왕위에 올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는 등 선정을 베푼다. 하지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된다. 결국 그는 하사엘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고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다.

▶**질문:** 요아스가 아달랴를 피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지냈던 기간은 몇 년인가?(11장)

4월 27일(수) / 왕상19-22

▶**내용요약:** 19장은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고 호렘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오는데 아합이 승리하나 벤하닷을 살려주는 실책을 저지른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이세벨의 계략으로 강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2장에서는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지만 실패하고 아합은 죽음을 맞이한다.

▶**질문:**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겼다고 하셨는가?(19장)

▶**생각하기:** 아람과 싸우려고 할 때 아합은 400명 정도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싸움의 승패를 물어본다. 모든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만 패전을 예언한다. 심지어 그는 이 일로 인해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고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된다. 오늘날 미가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4월 30일(토) / 왕하7-9

▶**내용요약:** 7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밤에 도주하면서 성은 구원받고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한다. 8장에서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된다. 9장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세벨까지 비참하게 죽는다. 이는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

▶**질문:** 엘리사가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기까지 얼굴을 쓰아보다가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행으로 인해 울어버린 사람은?(8장)

▶**생각하기:** 아합의 악행은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8:27).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 중에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아합을 그 기준으로 삼는다. 선한 왕의 기준인 다윗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다윗의 길인가 아니면 아합의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하기:**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서 아합 가문을 철저히 심판하신다. 이로 인해 예후는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에 걸쳐 계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평가하기를,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10:31)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는 예후를 보며 우리는 과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묻게 된다.